

# 보성군 뇌물 비리 현직 군수 등 4명 구속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전남 보성군수와 군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가 등 4명이 구속기소됐다.

또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를 땅속 등에 숨겨 보관한 군청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 순천지청은 18일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현직 이용부 보성군수와 군 공무원, 계약브로커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성군 경리계정을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관급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관급계약 성사조건 수익 원 '주거니 받거니' 담당 공무원, 뇌물 중 일부 집앞 땅속에 숨겨 순천지청, 범죄수익환수절차 통해 전액 환수

검찰은 또 이 군수에게 뇌물출 목적으로 보성군 공무원 D(49)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건넨 관급계약 브로커 B(45)씨와 같은 목적으로 군 담당 공무원 E(49)씨에게 8차례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C(52)씨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군수 측근 A(5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관급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진한 중개인 역할을 했던 군 공무원들은 불구속기소했다.

군 공무원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B씨로부터 이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20여 회에 걸쳐 함께 2억 2500만 원을 취득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E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C씨 등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함께 2억 3900만 원을 취득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D씨는 받은 뇌물 중 현금 7500

만 원을 주거지 땅속에 숨겼으며, E씨 역시 뇌물 중 현금 2500만 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의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보성군수 및 그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담당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 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함으로써 지역에 민연했던 관급계약 관련 토착 비리의 구조와 실체를 확인해 엄하게 다스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성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 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 5000만 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뉴스

## 전남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 최근 5년간 46억

전북 이어 2위 '오명'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농업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147건, 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703건, 220억 원에 달했다.

전남은 46억3600만원으로 전북(58억5600만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남겼다.

이어 제주(21억5800만원), 충북(16억9200만원), 충남(10억1200만원), 경남(21억4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전남은 올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거짓, 부정 신청(146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17억원)하거나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32억원)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만희 의원은 "사범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온갖 수법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크다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결국 6조 원이 넘는 농업 보조금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새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뉴스



금·은빛 물결이 춤추는 사지명역새 '장관' 18일 오전 우리나라 고산습지 가운데 가장 넓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리리 재약산 사지명역 새습지에 기암괴석과 함께 둘러싼 파노라마 같은 금·은빛 역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 "청소년 폭행·체벌·성희롱한 식당, 책임 방기" 노동단체 반발

광주·전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한 전남 모 식당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하며 집회·시위에 나선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1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담양군의 한 식당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하며, 매주 토요일 식당 앞에서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담양 한 식당에서 평균 1년 6개월 간 일했던 청소년 18명은 식당 관리인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하고 임금 6000여만원(단체 추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체벌 임금 전액 지급, 재발방지책 마련, 법 위반 사항 엄단, 특별근로감독 실시, 청소년 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제도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식당 측은 체벌 임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책임을 지며 청소년 3명에게 개별적으로 집폭, 체벌액 20~30%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

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사업주가 임금대장·출퇴근 기록부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사업주가 청소년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청소년 노동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식당이 체벌 임금을 전액 지불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집회·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남규 기자

## 미약투약 후 고속도로서 운전 혐의 40대 구속

미약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붙잡힌 40대가 구속됐다.

18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17.2km 지점 갓길에 수입 승용차 1대가 장시간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차량 운전석에는 제대로 묶을 기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A(48)씨가 있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A씨를 지켜보던 경찰은 그의 모습과 행동으로 미루 미약투약의 가능성을 의심했다. 곧바로 인근 순천경찰서 미약수사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공조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의 미약(필로폰 추정)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또 A씨가 가지고 있던 항정신성의약품도 찾아냈다.

경찰은 A씨는 물론 공범 B(61)씨도 찾아내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약 투약 뒤 특정 장소를 들렀다 고속도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누군가 내 술잔에 필로폰을 탄 것 같다. 스스로 미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주서 대형버스에 50대 치여 숨져

18일 오전 10시55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도로에서 A(58)씨가 대형버스에 치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도로를 건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버스 운전사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필로폰 유통·투약한 태국인 12명 구속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을 유통·투약해온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판매 총액 A(24·태국)씨와 중간 판매액 B(25·태국)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매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C(26)씨 등 태국인 10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지역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항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입한 뒤 25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다.

C씨 등 10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3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판매책들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로 친분을 쌓은 근로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우 기자

## '고수익 보장' 40대 사기범 구속

회사와 단체 보험을 체결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 회사와 단체 보험을 체결하기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며 B(65)씨에게 6억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 체결에 성공하면 투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초기에 1억5000여만원을 수익금으로 건네며 투자금을 더 키웠다. 가로챈 돈은 주식 투자로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는 1년여간 잠적, 도주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15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의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